

【P2-13】

난소절제한 여성의 칼슘 섭취와 골밀도

최미자

계명대학교 생활과학부 식품영양학과

난소절제수술로 인하여 인공으로 조기 폐경 한 여성은 호르몬의 분비 부족으로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. 따라서 대구지역의 평균 연령 46.3세의 대조군 여성과 인공으로 난소절제 한 평균 연령 47.2세의 여성의 영양소 섭취와 생활습관 및 골밀도 비교하였다. 조사한 결과 대조군과 난소절제군의 평균 신장과 체중은 각각 $57.2 \pm 6.9\text{Kg}$, $155.8 \pm 5.2\text{cm}$, $56.7 \pm 4.6\text{Kg}$, $156.2 \pm 4.6\text{cm}$ 였고 두군 모두 평균 BMI는 정상군과 난소절제군이 각각 23.3 ± 2.4 와 23.4 ± 2.5 로서 정상범위에 속하였다. 일일 평균 칼슘 섭취량은 정상군과 난소 제거군은 각각 660mg과 602mg으로서 98년 국민영양조사결과 전 국민 일일 평균 칼슘 섭취량 511.0mg 보다는 매우 높은 편이나 영양권장량 700mg의 94.2%와 86.0%수준으로 섭취하고 있었다. 일일 소비열량은 정상군과 난소절제군간이 각각 2008kcal와 1989kcal으로서 두 군이 차이가 없었고, 일일 평균 평상시 신체활동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하였을 때에도 난소제거군은 1,019kcal, 정상군은 1001kcal로서 거의 같았다. 정상성인과 난소절제 여성의 평균 골밀도(bone mineral density : BMD)와 골무기질 함량(bone mineral content : BMC)은 각각 $1.17 \pm 0.14\text{g/cm}^2$, $49.99 \pm 8.65\text{g}$ 와 $1.06 \pm 0.16\text{g/cm}^2$, $44.48 \pm 9.88\text{g}$ 으로 나타나 두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. 골밀도 향상을 위한 교육이 요구된다.